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천상계의 특성과 의미

- 모자 관계 형상화를 중심으로 -

김서윤*

|| 차례 ||

- I. 서론
- II.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천상계의 양면성
- III. 천상계의 시각에서 본 양모-양자 관계의 특징
- IV. 가문소설의 향유 맥락과 천상계의 의미
- V. 결론

【국문초록】

가문소설에서 천상계는 대체로 부계 가문의 중범 질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으로 천상계의 존재 의미가 온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완월회맹연〉의 경우, 결말 부분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인물들의 천상계 전생담은 단지 기능적인 차원에서만 천상계의 작용을 논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천상계 전생담에서 확인되는 인물들의 형상은 지상계 서사의 은폐된 차원을 가시화함으로써 부계 중범 질서를 근간으로 한 지상계 가치 질서의 균열을 드러낸다.

표면적으로 〈완월회맹연〉은 정인성과 소교완의 갈등을 선악갈등으로 형상화한다. 가문의 화합과 조화를 추구하는 정인성은 선인으로서 천상계의 보호를 받으며, 그를 모해하는 소교완은 천상의 섭리에 의해 징치 받는다. 그러나 실상 정인성에 대한 소교완의 맹목적 적대 행위는 그녀가 가문 내에서 소외된 약자의 처지임을 보여주는 의미를 갖는 바, 〈완월회맹연〉의 서술시각이 부계 중심 가문의 질서를 옹호하는 데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결말부분에 제시된 천상계 전생담은 지상계의 가문 중심 세계관에 내재하는 갈등과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갖는다. 천상계에서 경하용녀(소교완의 전신)와 태을성(정인성의 전신)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남성을 매개로 일시적인 모자 관계를 가탁하였을 뿐이다. 즉 천상계의 존재는 부계 가문의 조화와 화합만이 절대적으로 여겨지는 지상계의 가치 질서가 인위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울프(Wolf, M., 1972)가 주장하였듯이 동아시아의 부계 중심 가문 안에는 모계 혈연 중심의 ‘자궁가족(uterine family)’도 함께 존재해 왔다. 혈연으로 맺어진 모자(母子) 중심의 자궁가족은 부계 중심의 가문 질서에 노골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지만 내적으로 균열을 가한다. 이런 점에서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이원적 세계관은, 17세기 말~18세기 초 상층 사대문가의 여성 독자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부계 가문 중심의 가치관과 모계 자궁가족 중심 가치관의 대립적 공존을 형상화한다.

주제어 : 가문소설, 양모-양자관계, 균열, 이원적 세계관, 부계가문, 자궁가족

I. 서론

고전소설 작품들 중에는 서사세계가 천상계와 지상계로 이원화된 작품들이 적지 않다. 천상계의 존재는 전생담을 통해 밝혀지기도 하고, 작품 곳곳에서 주인공을 돕는 신령한 힘의 개입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상층 사대부 가문의 여성들이 즐겨 읽었던 가문소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인공을 천상계 성신(星辰)이 하강으로 설명한다든지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로 형상화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씨남정기>나 <창선감의록>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천상계는 대체로 가문의 기강을 바로잡고 구성원들 간의 불화를 해소하는 작용을 한다. 조상대에 덕을 쌓아온 가문은 하늘의 복을 받게 마련이며, 일시적인

시련은 가문의 기반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천상의 의도에 불과함을 이들 작품들은 잘 보여준다. 가문에 위해를 가하는 외부 세력은 천상계의 섭리에 의해 예외 없이 징치된다.

그러나 천상계의 존재가 반드시 가문 중심의 서술시각을 옹호하는 작용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씨남정기>나 <창선감의록>은 사대부 남성의 시각이 강하게 투영된, 여성의 교화를 목적으로 내세웠던 작품들이었으나 이후의 가문소설들은 이와 다른 흐름을 보여 왔다.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규방의 문화를 섬세하게 묘사하거나, 부부 갈등을 통해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나타낸 작품들이 등장하면서 가문소설의 주제의식은 다변화된다.¹⁾

그 중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 것이 입후로 인한 갈등을 다룬 작품들이다. <완월희맹연>, <서현공숙렬기>, <엄씨효문칭행록> 등이 그 예로, 종가에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해 형제의 아들을 양자로 들이지만 입양된 아들과 양모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득 작품에서는 뒤늦게 아들을 낳은 종부가 친생자에게 적장자의 자리를 물려주려는 욕망을 품고 양자를 음해하는 일이 벌어진다. 결국 양자의 지극한 효성으로 갈등은 해결되지만, 그 과정에서 가문의 위상과 기강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다.

이들 작품에서는 공통적으로 친생자에게 집착하는 종부가 악인으로 묘사된다. 입양자는 양모의 핍박과 모해에 시달리면서도 오히려 그 허물을 감추어 주고자 애쓰지만, 결국 모든 악행은 탄로나고 종부는 출거당한다. 이 과정에서 천상계는 꾸준히 선한 양자를 돕고 양모의 흉계를 제어하는 작용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모의 꿈에 나타나 그녀의 회과(悔過)를

1)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사씨남정기>, <구운몽>, <창선감의록>,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8집, 한국고전연구회, 2002, pp.265-266.

유도하기도 한다. 자궁가족의 유익만을 추구하여 가문의 종법 질서를 어지럽히려던 양모는 천상계의 개입에 의해 징치당하며, 그런 양모에게 친아들이나 다름없이 효를 다함으로써 가문의 질서와 화합을 지켜낸 양자는 천상계의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천상계가 반드시 그러한 단일한 작용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표면적으로 확인되는 천상계의 기능은 부계 중심 가문의 종법 질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상계의 존재 의미 전체를 설명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완월회맹연>의 경우 결말 부분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인물들의 천상계 전생담은, 단지 기능적인 차원에서만 천상계의 작용을 논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전생과 현생에서 인물들의 성격이나 인물 간 관계는 상이하게 묘사되는데, 이것이 인물들의 정체성에 일정한 균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선인을 돕고 악인을 벌하는 것이 천상계의 존재 이유라면 이러한 전생담은 불필요한 것이라 보아야 할 텐데도, <완월회맹연>은 굳이 모든 갈등이 마무리되고 권선징악의 결말이 실현되려는 순간 천상계에서의 인물들의 삶을 서술하고 있다.

천상계 전생담에서 확인되는 인물들의 형상이나 상호 관계는 지상계 서사의 은폐된 심층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완월회맹연>의 서술 시각이나 주제의식이 남성 중심 가문의식을 옹호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는 점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²⁾ 표면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

2) <완월회맹연>의 여성주의적 시각,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 여성억압에 대한 저항적 시각과 관련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정창권, 「<완월회맹연>의 여성주의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이현주, 『완월회맹연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여성 관련 회담(戲談) 연구 -남성 회담군 “정염”과 여성

은 가문의 기강과 규범을 옹호하는 목소리라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이질적인 목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의 다원성·다성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천상계와 지상계 또한 이질적 대립 구조로서 작품의 서사구조를 중층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는 편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설 하에, <완월희맹연>에 나타난 천상계 전생담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완월희맹연>에 나타난 천상계의 양면성

1. 부계 가문의식을 기준으로 한 지상계 선악 구도의 지지

<완월희맹연>에서 정인성은 본래 정삼(운계선생)의 맏아들인데, 큰아버지인 정잠(청계선생)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큰집으로 입양된다. 정잠과 양부인 부부는 정인성을 친아들 이상으로 사랑하며 길렀으나, 양부인이 죽은 뒤 소교완이 후처로 들어오면서 정인성의 시련이 시작된다. 소교완은 아들 쌍둥이를 낳은 뒤, 친아들 인중이 정씨 집안의 후계자가 되게 하기 위해 정인성 부부를 본격적으로 음해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정인성을 몰래 죽이고자 독이 든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심하게 매를 치기도 하지만, 정인성은 타고난 기질이 정대하여 웬만한 일로는 크게 화를 입지 않는다. 오히려 정인성은 소부인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죄 없는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벌을 주는가 하면, 소부인이 주는 음식에 독이 들어 있는 줄 알면서도

희담꾼 “상부인” 간의 희담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한길연, 「<완월희맹연>의 정인광: 폭력적 가부장의 “가면”과 그 “이면”」, 『고소설연구』 35집, 한국고소설학회, 2013.

사양하지 않고 먹는다. 소부인의 병세가 심각해지자 자기 몸은 돌아보지 않고 정성껏 기도하며 ‘어머니 대신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빌기도 한다. <완월회맹연>에서, 계모이자 양모인 소교완에 대한 정인성의 효는 곧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 강조되며 또 감동적으로 그려진다.

정인성을 아들로 여기지 않는 소교완과, 그런 소교완을 친모 이상으로 정성껏 섬기는 정인성의 갈등은 작품에서 뚜렷한 선악 갈등으로 그려진다. 후자가 개인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문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쪽이라면, 전자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적인 혈육의 이해만을 추구하는 쪽이기 때문이다. 인물의 품성은 혈육의 감정이나 이해 관계를 넘어서 가문 차원의 정체성이 철저히 확립되어 있는지, 즉 재중숙질 팔촌에 이르기까지 친부형과 다름없이 대할 정도의 가문 의식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친숙질과 중숙질이며 지중숙질의 니르히 거상지 스랑흐미 친부형 곱툰니
가중지간의 소장 미확인들 엇지 주인의 범풍 인화를 흡연 감열치 안니흐리오
만는 의리로운 말노써 능히 희혹지 못흐고 풍속으로써 능히 감동치 못홀 바는
쇼부인 모자라 (권79)³⁾

정인성은 핏줄이 전혀 섞이지 않은 소교완을 친모 이상으로 섬긴다. 소교완이 어떤 악행을 해도 정인성은 이른바 ‘대순지효(大舜之孝)’로 그녀를 섬기려 한다.⁴⁾ 부모가 자신을 해하려 하면 수단껏 피하여 부모에게 악행의

3) 김진세 역주, 『완월회맹연』6,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78.

4) 순 임금과 미생의 고사는 작품 전체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된다. 정인성 스스로 대순의 효를 본받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고, 인용이나 소공(소부인의 부친)이 정인성을 순 임금에 빚대며 소교완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름이 돌아가지 않게 하며,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진심어린 태도를 통해 결국은 부모를 감동시켜 올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인성이 표방하는 효다. 그리하여 소교완이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정인성은 그 피해를 입지 않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소교완의 허물을 감추어 주려 한다. 예를 들어 정인성은 소교완이 독이 든 음식을 줄 때를 대비해 해독제를 준비했다가 재빨리 먹기도 하고, 소교완이 매를 치면 몰래 약을 발라 치료하고 태연자약하게 거동하며 피 묻은 바지를 감추는 등 모친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쓴다.

부인이 비록 입으로 니리 니르느 눈으로 그 춤혹흔 상처를 보미 시각의 죽이지 못흔즉 드시 더오지 못홀 비오 그 스이 혹즈 보리 잇실가 그옥이 불평 하여 다행 결히이 스히고 계지를 불이치니 상세 계오 기운을 슈습하여 니르느 당상을 보라고 고두빅비하며 인하여 듀왈,

“불취 이제 물너느 옷술 갈고 즉시 드러와 피시리이다.”

<...>

상세 순순 돈슈이사하고 명광현의 도라와 한삼을 써혀 뉴혈을 씻고 스스로 상처를 어로만져 약을 쓰미 썰이 옷술 밧고와 피 무든 과의를 곱히 곱초고 동즈를 명하여 두어 준 향운을 가져오라 하여 므시기를 다히미 즉시 취전의 드러가니 소부인이 상셔의 고통하며 비상함을 오날날 처음으로 알미 아니로 디 그 견고 장심히미 혈육지신의 능히 견디어 기거치 못홀 바의 동디 안셔하고 횡뵈 여전하여 무르며 누오미 네뵈 빈빈하고 규귀 조디하여 통효 도덕지 일신을 돌너 태산이 암암하고 디히 양양한 도량이 건원 디디의 무궁유일함을 겸하여 인간 제일 독슈라도 능히 슬히치 못하고 귀신조츠 학(虐)하여도 존(殘)치 못하여 저를 업시키 어려오미 손으로 교약을 문희치고 동희를 터 갈코져 하미니 즈기 비록 닌등승천을 기약하느 텃덩이 역능승인이니 이 9달을 독이미 마춤니 뜻 곳틀 길히 업스니 식로이 근심이 등하고 회피 변흔하여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하니 (권89)⁵⁾

그런데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인성의 자기 방어는 단지 민첩한 기질이나 평온한 성품에 의한 것만은 아니며 ‘귀신조차 해치 못할’ 기특하고 비상한 능력에 힘입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능히 견디어 내지 못할 상처를 입고도 행동거지가 편안하기만 하여 소교완을 경악케 한다. 그녀는 정인성을 해하는 일을 ‘인중승천(人衆勝天)’을 기약하는 데 비기기도 하는데, 이는 정인성이 천상계의 신비로운 힘에 의해 분명한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소교완은 그렇지 못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정인성의 비범함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여러 차례 된다. 정인성은 전쟁터에서 적국의 수지로그 풍토를 일순간 바꾸어 놓는가 하면, 전투 중에는 신비한 도술을 발휘하여 승리를 거두기도 한다.

곤충 초목과 비금 주슈 다 오형이 상싱혀 일월의 영웅하고 산천의 품슈
 하니 안남이 기벽초로브터 홀노 슈퇴 소오나오미 아니라 산천의 요요한 진이
 와 음독한 괴운이 모혀 안남의 널니 퍼지니 인물이 교악하며 토품이 혐괴하여
 모진 물과 악한 괴운이 타방 슝름을 병드리고 죽이를 병인으로 더오미 감치
 아니허더니 금즈의 덕현 군즈 명금(名琴) 신곡으로써 건곤이 기탁하며 만물
 이 브싱하는 도화를 이으니 소소 구성의 봉향이 춤추고 빅죄 반도의 명하여
 신여인(神與人)이 기화낙(皆和樂)하며 도여슈(鳥與獸) 상여낙(相與樂)홀 쓴
 아니라 격탁(擊濁) 정청(澄清)하여 천지 스이의 가득흔 독기와 악예를 쓰리
 치니 일야지너의 여러 시너와 만흔 물이 홀연이 말근 빛과 조흔 마슬 밧고와
 혼탁한 더러오미 업스니 일노초츠 남방 슈천여리의 슈퇴 전즈와 너도하여 스
 름이 토질노는 신고허리 잊지 아니하니 이는 다 체찰의 신긋지덕으로 비로스
 미로덕 (권63)⁶⁾

5) 김진세 역주, 『완월회맹연』6,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p.279-280.

6) 김진세 역주, 『완월회맹연』5,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83.

버들 갖든 옥슈의 농천 티아검을 죽아 남왕의 부즈 군신을 좌우로 디적하
미 칼쓰는 법이 신출 귀몰하여 호호히 공중의 무지기 빗기미 상설이 번득일
싼 아니라 손 놀리는 지조와 몸 가지는 형상이 옥도 진인이 아니면 이리치
못홀 지라 (권65)⁷⁾

체찰이 쏘 흥번 진전의 서 기를 돌너 제장을 일쳐의 모호는 닷 다시 훑터져
삿흠을 직촉하는 닷 조화 신능(神能)하더니 홀연 슈운이 사기하고 침뫼 몽뫼
하여 일식이 무광하디 미친 바름과 날리는 툃글이 신경이 현난하를 니기치
못홀 비로디 <...> 체찰이 장졸을 일제히 영중의 두어 흥 닷 소졸도 진 맞게
넉미 업스디 무슈 군마 기기가 명병 복식을 갖초고 남군을 디적하니 이는 체
찰이 도술노 풀홀 버혀 말을 민달며 모리를 날너 군스를 심는 신기를 뉘 알니
오 (권66)⁸⁾

이밖에도 몽골 등지를 떠돌 때 정인성을 공격한 척발유의 칼이 저절로
떨어지는 대목, 동생 정인중이 쓴 화살이 인성의 몸 가까이 오면 저절로
떨어지거나 꺾어지는 대목 등에서 정인성은 분명 초인적인 인물로 형상화
된다. 그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출천(出天) 효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초월적 능력에 힘입은 것이다. 이런 점들에 주목하면, <완월
회맹연>에서 천상계의 존재는 정인성의 효행을 돕고 지지하며 소교완에
대한 그의 도덕적 우위를 명료히 드러내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부계 가문의식을 기준으로 한 지상계 선악 구도의 한계 암시

그러나 작품의 실상은 이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 천상계의 존재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결말 부분의 전생담 대목인데, 해당 부분에서 천

7) 위의 책, p.136.

8) 위의 책, pp.157-158.

상계의 존재는 오히려 지상계의 가문 중심적 선악 구도를 상대화하는 작용을 한다.

소교완과 정인성 모자의 갈등이 절정에 이를 무렵, 소교완은 천상계로 불려 가 정인성과의 갈등이 전생의 원한 관계 때문임을 알게 된다. 소교완은 집안사람들에게 그간의 악행이 밝혀진데다가, 유일하게 자신을 아껴주던 친정어머니마저 죽자 몸져 눕는다. 그러던 중 홀연 비몽사몽간에 천상계로 인도되어 죽은 어머니를 만나 꾸중을 듣고, 전처인 양부인을 만나 한권의 책을 받게 된다.

인세 정청계는 본이 문창성으로 옥데 압히셔 문즈를 일울 제 직녀 텃손이 그 풍치를 흠선하여 눈으로써 유의하여 보니 문창성이 엄절이 물니치지 아니코 희롱하미 옥데 그 무례함을 노하샤 인간의 적하하여 춘추난세의 강하하여 시절을 만나지 못하고 도를 폐지 못하미 츠석다 하샤 인간 부귀를 누리게 하시나 십년 고회를 격겨 직녀의 희롱한 죄를 속게 하시고 직녀는 비록 그 죄로써 적강하여시나 본디 텃데지손으로 지극히 존귀하니 진토중의 오리 두지 못홀 거시니 삼십일을 한하여 도로 텃궁의 도라오게 하시니라. 문창을 유의하고 스속홀 남즈를 두지 못하여 명녕을 의탁케 하시닐 경하농의 데삼네 식용이 비상하니 향이 극히 스랑하여 농궁의 도라보너지 아니코 월궁의 피섯더니 일일의 온네 명으로 구름 타고 남악 군산의 횡홀시 길히셔 문창을 만나니 농네 문창의 풍신을 흠선하여 향이 위진군기 보너지 반도를 더져 쫓을 통하고 만단 희롱하니 문창의 여즈의 음욕을 통히하여 밀쳐 버리미 구으러 바회 아러 나려 지니 농네 대로하여 도라와 월년의 하리하니 향이 문창의 방즈를 노하여 옥데기 고하고 문창을 죄 주시물 청하니 옥데 본디 문창을 중히 녀이시는지라
 불너 곡절을 머르시니 문창이 실스로써 고하니 옥데 문창의 죄 아니라 하샤 농녀의 음난 방즈하미라 하샤 농녀를 낙하의 귀양 보너지니 농네 원을 품고 한을 먹음어 문창을 스모하는 쫓과 이즈를 펴보코져 쫓이 잇고 문창과 직녀의 적강함을 보미 가마니 글을 올려 향이의게 소회를 고하고 험가지로 인간

부귀를 원하니 옥데 그 소원을 조츠샤 십여일 후 인간의 느리와 턴손의 훗즈 리를 다텔 하오니 태을(정인성)이 문창(정잠)과 직녀(양부인)의게 슈은이 만 혼 고로 즈원하여 그 슬히 되어 은혜 갑기를 원하니 장춧 하계로 날릴시 전일 태율이 농녀(소교완)의 문창 스모함을 조롱하여 글을 지오니 농네 대로하여 원슈 갑기를 괴약던 바로 한가지로 인세의 느리미 농녀는 문창을 원하여 턴손의 슬하를 빗닉고져 하니 한가지로 정시의 속하여 모즈의 일흠을 빈지라 드디어 전일 조롱하던 한을 갑기로 맹세하였더니 (권164)⁹⁾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천상계에서 경하용녀(소교완의 전신)와 태을성(정인성)은 본래 적대적인 관계로 지상계에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이후 지상계에서의 어떤 노력도 그 관계의 본질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인물들이 맺고 있던 본래의 관계는, 가문 중심의 시각으로는 재단될 수 없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가문의 테두리를 떠나서 보면, 소교완과 정인성은 혈연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남이다. 전생담을 통해 설명되어 있듯, 경하용녀는 문창성을 따라 정씨 가문으로 들어왔을 뿐이고 태을성 또한 문창성에게 옛 은혜를 갚기 위해 정씨 가문에 태어나게 되었을 뿐이다. 아버지라는 매개가 사라지면 ‘한가지로 정씨 가문에 속하여 모자의 이름을 빌린’ 두 사람의 관계는 본래 천상계에서 그러했듯이 서로 무관한 남남의 관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천상계에 다녀온 뒤 소교완은 정인성에 대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극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면, 천상계의 존재는 여전히 지상계 가문 중심적 세계관을 강화하고 가문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천상계의 논리에 의하면 이러한 소교완의 회과는 그녀가 정인성을 진정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다.

9) 김진세 역주, 『완월회맹연』11,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p.280-281.

소교완은 천상계에서 친정어머니 주부인과 전처 양부인을 만난 뒤 회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두 부인이 소교완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뉘우쳐야만 친아들 인翁을 살릴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해서였다.

부인은 개심 슈덕하여 존고를 효봉하고 즈녀의 근심을 덜며 응오의 복조를 창성케 하소서 <...> 상대 부인의 허물을 벌히시미 응오를 죄하고져 하시니 닌옹이 드스 죄 이시리오 첩이 구구한 뜻이 저의 괴질 덕힘으로 초초 몰몰홀 바를 통석하고 저 형의 거동을 생각하미 엇지 방심홀 비리잇고 옥데 괴명을 벌고져 하미 시기 여츠하여 오직 부인의 회과하미 잇는지라 녕존당 태부인과 상의하여 금일 청하여 소유를 고평니 부인이 첩의 당돌홀물 허물치 아니시고 능히 닌옹의 명을 닛게 하시리잇가 (권164)¹⁰⁾

부계 가문의 종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입후 제도는 지상계에서는 친모자 관계를 대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그려지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은 악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천상계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한 부계 가문 중심의 세계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부계 혈통을 매개로 한 소교완-정인성의 모자 관계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닌 것임은 천상계 경하용녀-태을성의 관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전생담의 무대인 천상계는 작품에 담긴 부계 가문 중심 세계관의 취약함과 불안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지상계에서 가문의식을 기준으로 설정된 인물간의 선악 관계도 천상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천상계에서 경하용녀는, 물론 이미 인연이 정해진 문창성에 대해 욕망을 품고 문창성과 직녀성의 인연을 방해하는 죄를 짓기는 하였으나 그 계기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문창성이

10) 위의 책, p.286.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기느커녕 바위 아래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만들었기에, 오기가 발동한 용녀로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뜻을 이루어 보고자 인간 세상에까지 그를 따라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그녀의 행동은 문창성에게 음란하다도 여겨져 배척을 당하나, 양부인의 전신인 직녀성도 이에 앞서 문창성을 흠모하여 주시하는 등 호감을 표현한 바 있음을 생각한다면 경하용녀의 행동이 절대 용납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편 양모-양자 관계나 양부-양자 관계만이 천상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전생담을 통해 천상에서의 본래적 관계가 드러나는 것은 모두 양부모와 양자의 경우들이다. 위에서 살펴본 소교완·양부인과 정인성의 관계도 그러하거니와, 정잠과 정인성의 양부-양자 관계 또한 천상계에서의 특별한 인연에 의해서라고 설명된다. 이들의 전신인 문창성-태을성의 관계는 개인 간의 자발적인 호의 관계로 묘사되어 있다. 태율이 문창과 직녀에게 은혜 입은 것이 많아 자원하여 그 슬하가 되고자 했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이들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천륜에 버금가는 것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정인성은 정잠에게 전생의 은혜를 갚았다 할 만큼 많은 도움을 준다. 정인성이 태을성의 후신으로서 초월적 능력을 여지없이 발휘하는 것은 주로 정잠과 함께 출정을 나갔을 때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교지국과 안남국의 험한 풍토를 일순간에 바꿔 군사들이 순조롭게 행군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하면, 도술을 펼쳐 승전을 이끌기도 한다. 이러한 정인성의 활약은 대원수 역할을 맡고 있던 정잠에게 큰 힘이 된다.¹¹⁾

11) 물론 정인성 홀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대목들도 있다. 예컨대 가족을 잃고 홀로 몽고국과 금국을 떠돌 때, 정인성은 가뭄에 시달리던 지역에 갑자기 비가 내리게 만들기도 하고 전염병이 사라지게 만들기도 한다.(권14) 이런 대목들에서도 정인성은 ‘병

그러나 정작 정삼-정인성이나 정잠-정인웅 등 친부자 관계에 대해서는 전생의 인연 자체가 서술되지 않으며, 특별히 상호 협력하는 상황이 없어도 자연스러운 인간적 정이 부각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전생담을 통한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양부-양자 관계의 불안정한 기반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주는 표지로 읽히기도 한다. <완월회맹연>에서는 정잠-정인성이나 정흠-정인웅 두 양부자의 관계에 한해서만 천상계에서의 인연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양부-양자 관계가 그만큼 부담스럽고 어렵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¹²⁾

Ⅲ. 천상계의 시각에서 본 양모-양자 관계의 특징

천상계가 부계 가문의식을 중심으로 한 지상계의 질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면, 전생담에 나타난 바 양부모와 양자의 특별한 인연은 그들이 비록 핏줄은 섞이지 않았지만 ‘천륜’이라 할 만한 공동의 운명으로 묶여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인성은 천상계에서의 은혜를 갚기 위해 정잠의 아들이 되었고, 천상계에서 지은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소교완의 아들이 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이미 적대적인 관계로 시작된 것이 정인성과 소교완의 관계라는 점에 착목하면, 두 사람이 끝내 화합에 이르지 못하는 것 또한 천상

란, 재화, 생사를 주관하는 별인 태음성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들은 작품의 중심 서사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기 때문에, 다만 천상계에서의 정체성이 지상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만 살펴두고자 한다.

12) 벽수유(정인웅의 전신)도 문계공 부부에게 전세에 입은 은혜를 갚고자 자원하여 아들이 되었다고 설명된다. (권14 ; p.282.)

작품을 읽다보면 오히려 여유로운 쪽은 정인성이며 그를 괴롭히는 소교완이 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될 정도로 그녀의 처지는 절박하다. 사실 정인성은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이미 누리고 있다.¹⁴⁾ 더구나 정삼을 비롯해 집안 식구들 모두에게 처음부터 경계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교완의 운명은 오히려 정인성이 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힘에 부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결사적으로 정인성에 대하여 모해를 거듭하는 소교완의 상태는 ‘정신장애상태’라고까지 진단된 바 있거니와,¹⁵⁾ 이는 그녀가 실상 가문 내에서 소외된 약자의 처지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소교완이 가해자이고 정인성이 피해자인 듯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대목을 보면, 정씨 가문 사람들이 소교완의 허물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정인성이 이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데서 알 수 있는바 소교완의 처지가 정인성에게 매여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좌위 식로이 양복 기경하여 소부인 불인 간교함미 으모 곳의 밋쳐서도 이 즈제가 잇난 브의 그 모부인 허물을 감히 이르지 못홀지라 늑연한 지의를 일체 관지의 거상지 송연하고 직히지 축척하여 향홀 바를 으지 못흐니 일신이 도시 담이오 변설이 의진 갖트여도 그 열치 아난난 바를 식어의 빗최지 못흐난 고로 일가 제인이 여러 세월의 혼결갓치 말이 업스미라 (권86)¹⁶⁾

도덕적으로도 소교완은 악인으로만 단정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그녀는

14) 이를테면 정인성이 소교완의 뜻에 따라 아내인 이부인에게 무고하게 죄를 물으려 하자 태부인과 정삼은 만류하지만, 정인성이 고집을 부리자 슬퍼하면서도 그 뜻을 따라주었던 일을 예로 들 수 있다. (권6 ; pp.259-260.)

15) 이현주, 앞의 글, pp.103-104.

16) 김진세 역주, 『완월회맹연』6,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214.

정씨 가문에 시집오자마자, 남편으로부터 ‘혹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인성을 해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경계를 받게 된다. 친정에서는 막내딸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툰딜이 탁월하며 식모 담염이 천고를 기우려도 듯히 못흔 비’요 ‘성형이 총명 영달하여 빅시 인뉴의 특이’(권3)하다고 칭찬받던 소교완으로서의 시댁에서의 답답하고 우울한 생활이 견디기 어려워움을 짐작할 수 있다.¹⁷⁾ 그녀는 친정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젊은 나이에 정잠의 후처로 올 수밖에 없었던 여성으로서의 처지 자체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세간의 너지되오미 진실노 괴롭고 어려오물 췌닷느니 네 어미 비록 성문의 송당 입실흔는 덕량이 업스나 만일 남지 되어던들 한도의 고역후와 강좌의 주공근은 굿타여 불워 아니리니 거의 제갈무후의 기지덕국이라도 쫓와 비호기의 맞출지라 그 모어시 진치 못하여 소시를 흥괴홀 착흔 되지 못하고 문득 여즈 되미 췌 병도이 남 갖지 못하여 교목을 낫초고 부귀를 굴하여 이팔지세의 이모 당부를 우흔미 전스름의 즈취를 니은 후 스름의 구구함과 서어흔를 겸하여 축척무광흔고 불쾌흔미 극흔거늘 네 부친이 날을 초두부터 어지리 아니코 연고 업시 의심을 두어 닌성 남뭇를 구구 계렴흔미 진실노 주을들미 갖갓오니 너 췌흔 마음을 결흔 비 잇셔 하늘을 디흔여 군후의 닌성 귀중흔를 헛곳의 도라보니여 정시 종통으로써 괴즈 쇼심이 밧들이 업고즈 흐므로 전후식 어질고 덕되물 엇지 못하여 흥교 극악흔를 먼치 못하니 (권68)¹⁸⁾

위의 대목은 소교완이 친아들이인 인중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정인성 부부를 모해하고 있음을 알게 된 뒤, 아들의 악행에 한편 놀라면서도 그것

17) 이현주는 소교완은 후처로 정씨 가문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가문에서의 위상이 불분명하였으며, 그로 인해 가문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자 하는 강박증에 이끌려 행동하게 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현주, 앞의 책, p.75 및 pp.103-104 참조.

18) 김진세 역주, 『완월회맹연』5,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p.288-289.

이 모두 자신의 운명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듯이 소교완은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정잡의 후처가 되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과 서러움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친아들 인중을 정씨 가문의 후계자로 세우려 한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피해의식을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에 의해서라고도 볼 수 있다. 더욱이 쌍둥이 아들을 낳자마자 그중 하나를, 그것도 더 빼어난 아이를 남편의 사촌에게 빼앗기다시피 양자로 보내야 했던 소교완으로서는 하나 남은 친아들인 정인중을 통해 가문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자리를 가져보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녀의 행동은 단지 핏줄에 대한 사사로운 욕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심리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¹⁹⁾

이밖에도 소교완의 심정은 <완월회맹연> 곳곳에서 그녀 자신의 목소리로 토로되고 있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효를 행하는 정인성에게 미안함을 느껴 내적으로 갈등하기도 하며, 그러다가도 또 마음을 모질게 먹고 정인성을 괴롭히는 소교완의 심리를 독자들은 작품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친아들을 위해 정인성을 몰아내려 애쓰는 소교완의 모습은 단순히 가문의 시각에서 악행으로만 묘사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소교완이란 인물은 한편으로는 가문의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악인으로 그려지지만, 개인적인 처지만 놓고 볼 때는 오히려 피해자처럼 그려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과 관련지어 천상계 전생담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자유로운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던 경하용녀의 주체적인 삶이 지상계 부계 중심 가문 질서 하에서 심한 질곡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19) 정병설은 소교완의 악행이 죽은 전처와 계속해서 비교당하는 가운데 쌓인 열등감 때문이라고 보고, 그녀를 단순히 종통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악인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병설, 앞의 책, pp.92-97 참조.

수 있다.²⁰⁾

또한 소교완을 친모처럼 섬기는 정인성도 실상은 친부모에 대해 특별한 정을 감추지 못하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예컨대 나랏일로 먼 길을 떠날 때면 항상 친부모와 애뜻한 감정을 나누는 것을 볼 때 정인성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며 가문에 대한 소속감 이전에 혈연 가족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적 욕구를 지니고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시시의 정처스 운계선싱이 다시 형당의 말삼 업스믈 보고 사랑을 느호여 금이(衿裏)의 포화하미 강보아를 품의 품음 갖타니 사랑이 감은 황공호여 도로여 몸을 편히 쉬우디 못흐니 부즈의 유유한 경과 턴눈의 무한한 정을 어디 비호리오 사랑이 가마니 눈물을 느리와 잠을 일우디 못흐며 원벌의 결연호를 능히 참디 못흐더라 (권41)²¹⁾

사랑이 비이슈명호고 이의 부공을 피셔 취루의 안침호심을 보온 후 다시 부친과 이숙의 침수를 살피고 비로셔 틈전의 드러가니 왕모는 님의 취침호시 디 모친은 안즈 계신디라 이의 침구를 베퍼 안휴호시를 청호며 스스로 모친 손을 밧들고 무릅히 머리탈 더허 같오디

“소직 이제 슬호를 셔나오미 도라오미 명년이 되올듯호오디 즈위 소즈를 싱각호스 구구상념호실 브를 싱각호오니 쇼자의 심회 일시나 편홀 썸 잇스오

20) 이러한 소교완의 이중적 형상은 비슷한 내용을 다룬 <엄씨효문청행록>의 최부인과 비교해 볼 때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최부인은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한 가문의 총부로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인 업창을 모해하는, 전형적인 악인으로 그려진다. 반면 입후자인 업창은 친부모와 멀리 떨어져 최부인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당하기만 한다. 즉 <엄씨효문청행록>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단일하고 명료한 선악 구도를 띠고 전개됨에 따라, 천상계-지상계가 상호 대립적 구도를 형성하지 못한다. 즉 <엄씨효문청행록>에서 천상계는 악인인 최부인을 벌하고 선한 업창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21) 김진세 역주, 『완월회맹연』3,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p.353-354.

리잇가 슈연이나 두 아이 인효하며 당슈와 소쉬 숙헌호와 봉시 감탕이 근심이
업스올디라 즈위 심스를 날이흐스 소즈로써 성녀의 거리끼디 마르시고 성휘
안강흐스 소지 만니의셔 브라는 브를 저바리디 마르소서”

설파의 모친 팔을 달호며 유유흔 정을 니기디 못흐니 부인이 날호여 당복
을 탈호고 벼개의 늑아갈식 스스로 으즈를 꺾티 누으를 일으며 쏘한 무빈을
어로만져 <...>22)

양부이자 큰아버지인 정삼과 함께 원정을 떠나기 며칠 전, 정인성은 위
의 인용문에서처럼 친어머니와 그간 쌓여온 정을 나누며 밤을 샌다. 이와
같은 혈육간의 특별한 감정이란 인간에게 없을 수 없는 것임을 생각한다
면, 천상계 태을성의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행위에서도 암시되었듯이 정
인성도 전적으로 가문의식으로 무장한 이념적 인간이라고만 보기는 어렵
다. 요컨대 정인성과 소교완은 얼핏 보기엔 피해자와 가해자, 선인과 악인
으로 그 인품이 대조를 이루는 듯하지만, 실상은 것처럼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IV. 가문소설의 향유 맥락과 천상계의 의미

17세기 후반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가 창작되고 국문·한문을
아울러 많은 이본을 파생하며 널리 읽힌 이래로, 가문소설은 상층 여성 독
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으며 활발히 유통되었다. 특히 <완월회맹연>
등 몇몇 작품들은 17세기 말 내지 18세기 초엽 사대부 가문의 여성이 직접
창작한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어 가문소설에 대한 상층 여성 독자들의 호응

22) 위의 책, 같은 부분.

을 실감케 한다. 그러므로 이들 작품에 나타난 이원적 세계관 또한 당시 상층 여성 독자들의 현실 인식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두 작품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가문소설에서 모계 중심의 혈연 가족과 부계 중심 가문의 논리가 상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결국은 후자의 질서에 의해 모든 갈등이 해결되며, 모계 혈연의 가깝고 넓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계 가문의 종법 질서임이 작품의 주제로 부각되지만 그 과정은 간단치 않았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혈연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배제하고 가문의 규범과 논리에 순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가 상세히 묘사되는 것은 가문소설의 지향이 단지 부계 가문의식의 강화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해 준다.

17세기 이후 사족 여성의 생활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져 왔듯이, 부계 중심 가문 질서의 확립이 반드시 여성의 주체성 상실이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은 가부장제에서 요구되는 미덕들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면서도, 한편 남성의 조력자이자 조연자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경제 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²³⁾ 표면적인 가문의 질서는 남성 가부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으나, 그것을 지탱하고 운용하는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은 상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구심점으로 하는, 모계를 중심으로 한

23) 17세기 사족 여성들이 가문 구성원들의 기대 속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출가 후에도 가정 경제활동의 주축을 담당하는 한편 자녀교육이나 남편에 대한 조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논의로는 황수연, 『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 - 묘지명, 행장, 제문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pp.161-192과 강혜선, 『조선 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pp.189-219 참조.

가족관계가 가부장제 하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리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여러 대를 걸쳐 조직화된 부계 가문 내에서,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의 관계만으로 시작되는 모계 가족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과 친밀한 감정적 유대를 맺고 있는 어머니의 존재는 점점 더 부각될 수 있었고, 이것이 가문의 내적 질서를 이끈바 ‘자궁가족’ 중심으로 개편하는 힘이 되었으리라 볼 수 있다.

울프(Wolf, M., 1972)가 주장하였듯이 동아시아의 부계 중심 가문 안에는 모계 혈연 중심의 ‘자궁가족(uterine family)’도 함께 존재한다.²⁴⁾ 부계 중심 가문의 관점에서만 보면 시가에서 여성의 삶이란 수동적이기만 한 것 같지만, 자궁가족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 울프의 분석이다. 혈연으로 맺어진 모자(母子) 중심의 자궁가족은 부계 중심의 가문 질서에 노골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지만 내적으로 그 질서에 균열을 가한다. 여성은 표면적으로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순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낳은 아이들과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며 그리하여 아들이 장성한 후에는 남편을 배제하고 가문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궁가족’은 한국의 경우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큰아들에 대한 편애, 순종적인 며느리상 등은 물론 부계 가문의 논리로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후일에 자신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고 보호해 줄 자식과 독점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여성의 무의식적 전략으로 설명된다.²⁵⁾

24) Wolf, M., *Woman and family in rural Taiwa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2, pp.32-41.

25) 임돈희, 『여성과 가족관계』, 『여성학의 이론과 실제』, 여성학교재편찬위원회 편, 동국

더욱이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부계 중심의 가문 질서는 그 기반이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이후에도 혈연 중심의 자궁가족의 존재를 쉽게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종서(2009)가 지적하였듯이 16세기까지만 해도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²⁶⁾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도 ‘외삼촌’과 마찬가지로 ‘아자비’로 통용되었고, 그 부인 역시 ‘아자비의 처’로 불리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계 중심의 가문 질서가 확산되면서 ‘어머니’는 혈연상의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처’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아버지 형제의 부인이 어머니에 버금가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실제로 자신을 낳아준 사람만을 어머니로 칭하던 이전의 관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모나 양모에게 어머니로서의 권위와 의무를 인정하기란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종서가 지적하고 있듯이 조선 후기 수많은 계모형 고전소설을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혈연으로 맺어진 자궁 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관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성리학적 중법 질서에 따라 부계 중심의 가문 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고, 여러 세대의 혈연 가족이 동거하는 형태의 ‘오세동당(五世同堂)’이 이상적인 가문의 형태로 추구되기도 하였다.²⁷⁾ 팔촌까지의 부계 친족은 서로 복상의 의무를 진다는 ‘오복(五服)’이 제도화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실적으로는 조부모 이하 삼대가 함께 사는 것이 인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고조 친족집단 전체를 ‘집안’이라 부르면서 그 하위의 개별 가족을 ‘큰집’, ‘작은집’ 등으로 표현하는 등

대학교 출판부, 1990, pp.368-369.

26) 이종서,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 신구문화사, 2009, pp.248-253 참조.

27) 최홍기, 『한국 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해 - 전통과 현대의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p.39-41 및 pp.66-73 참조.

가문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장자를 중심으로 종법 질서는 이러한 일가의 단합과 조직화를 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라 하겠다.

친자, 양자를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아들에게 적장자의 자리를 넘겨주고 싶어 하는 <완월회맹연>의 정삼은 이러한 가문 중심 세계관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는 인물들이다.²⁸⁾ 정삼은 친아들보다 양자인 인성을 더 아끼며, 친아들이라도 가문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엿보이면 미워하고 거리를 두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이 박절하다는 평을 듣곤 한다. 동생인 정삼 또한 형의 그러한 가치관을 잘 알기에 아들이 양모와의 갈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모른 채한다. 나이가 정씨 가문의 모든 구성원들은 혈연의 가깝고 땀을 따지지 않고 한 가족처럼 지낸다. 그리하여 ‘돈목하는 정이 엇지 동기와 총형데며 직종이물 간격히리오’, ‘동복남미 안이물 씨 닳지 못홀 분 아니라’, ‘친싱이며 아니를 모르는디라’와 같은 말을 작품에서 수시로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혈육의 정은 특별한 것으로 묘사되며, 작품 곳곳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 강조된다. 계모에게 순종하면서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정월염, 사촌형제에게 입양 보낸 뒤 오랜만에 만난 친아들 인웅을 어루만지며 사랑하는 정삼의 모습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더없는 효자인 정인성도 혈연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28) 『경국대전』 등 법조문에는 종가에 아들이 없을 경우 아우의 아들들 중 맏아들이 아닌 사람을 입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완월회맹연> 등 가문소설에서는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아우의 장자를 형의 양자로 삼으며, 항렬이나 나이보다도 가문을 창달할 수 있는 능력을 입후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한층 더 강고한 가문주의적 사고를 나타낸다고 한다.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 - 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pp.147-148 및 pp.153-154 참조.

인간일 뿐이다.

천상계의 존재는 이러한 혈연 가족, 자궁 가족의 존재를 암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천상계 전생담에서 소교완과 정인성은 서로 반감을 품고 있으면서도 문창성과의 인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 가족으로 살게 되었고 설명된다. 정인성은 소교완을 ‘아버지의 처’로서 어머니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소교완이 정인성의 진짜 어머니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인성이 태을성의 후신으로서 갖추고 있는 훌륭한 인품과 기질이 오히려 소교완의 화를 돋우며 소교완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점은 이들 모자 관계의 본질적인 한계를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이원적 서사세계는 상층 사대문가의 여성 독자들이 경험하고 있었을 분열된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지상계가 부계 가문 중심의 세계라면, 천상계는 그러한 가문 중심의 선악 구도가纲要되기 이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망이 인정되는 세계다. 이 두 세계는 물론 노골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지만 묘한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부계 가문이 지향하는 가치와, 자연스러운 혈연 중심의 감정과 욕망에 입각한 가치는 표면적으로는 일치하기 때문에 양자는 공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가 표방하는 가치가 그리 공고하고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주장하며, 전자는 다시 후자를 억압하고 부정하다는 점에서 둘의 공존은 항상 근본적인 균열을 함축하고 있다.

부계 가문 질서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었던 17세기 말~18세기 초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 상층 여성 독자들이 가문 내에 공존하는 두 가지 상이한 질서의 긴장과 대립을 다룬 가문소설 작품들에 관심을 가졌음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완월회맹연>은 이원적 세계관을 통해 이러한 규방 여성의 현실을 명료하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지상계가 일

상적·규범적으로 통용되는 부계 가문 중심의 세계를 보여준다면, 천상계는 그에 포섭되지 않는 욕망과 감정의 세계를 형상화함으로써 당대 현실을 총체적·역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문학 작품의 가치는 세계에 대한 전체적이고도 명확한 인식을 가능케 해 주는 데 있음을 생각한다면, 당대의 여성 독자들에게 <완월회맹연>은 그들 자신의 관점과 목소리로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제공해주었으리라고 여겨진다.

가문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영웅군담소설과는 달리 상층의 향유물로서 보수적 규범의식을 표방하는 만큼, 모든 작품들이 이원적 세계관을 통해 가문의식의 분열이나 가문 내 갈등의 심층을 조명하고 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천상계 또한 그 표면적인 기능은 어디까지나 가문을 수호하려는 선인들을 보호해 주며 그들을 해하려 하는 악인들의 횡포를 막아주는 데 있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가문 이데올로기의 본질적인 모순과 한계는 어떻게든 드러나게 마련이며, 그것이 천상계라는 상상적 세계의 이면적 작용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이다.

V. 결론

고전소설, 특히 국문소설의 이원적 세계관은 이념적 당위를 정당화하고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설명되곤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지상계와 천상계의 이질성과 대립 관계에 좀더 주목하여, 두 세계를 통한 현실의 총체적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즉 천상계의 존재는 지상계의 일상적이고 규범화된 공간에서는 드러내놓고 인식할 수 없는 세계의 억압된 차원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고 보고,

<완월회맹연>에서 그 구체적 양상과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하나의 현실이 규범적 차원에서 인식되는 동시에 그에 대항하는 새로운 관점에서도 포착될 수 있을 때, 세계의 분열된 상태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원적 세계관이 출현할 수 있다. 특히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에, 기존의 가치와 충돌하는 새로운 가치의 출현은 문학 작품에서 선구적으로 포착될 수 있다. 논리적 차원에서는 아직 개념화되지 않은 새로운 현상도 문학적 형상으로는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이원적 세계관은 부계 가문의 질서와 모계 혈연의 논리가 충돌하면서도 공존하였던 17세기 말~18세기 초의 규방 현실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 김진세 역주, 『완월회맹연』1~12,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김진세 외 옮김, 『엄씨효문청행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사씨남정기〉, 〈구운몽〉, 〈창선감의록〉,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pp.265-266.
- 이중서,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 신구문화사, 2009, pp.248-253.
- 이현주, 『완월회맹연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p.75-104.
- 임돈희, 『여성과 가족관계』, 『여성학의 이론과 실제』, 여성학교재편찬위원회 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pp.368-369.
-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 - 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pp.147-154.
-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p.92-97, pp.162-186.
- 정창권, 『〈완월회맹연〉의 여성주의적 상상력』, 『고소설연구』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pp.245-270.
- 최홍기, 『한국 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해 -전통과 현대의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p.39-73.
-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여성 관련 회담(戲談) 연구 -남성 회담꾼 “정엄”과 여성 회담꾼 “상부인” 간의 회담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pp.273-310
- _____, 『〈완월회맹연〉의 정인광: 폭력적 가부장의 “가면”과 그 “이면”』, 『고소설연구』35집, 한국고소설학회, 2013, pp.27-64.
- Wolf, M., *Woman and family in rural Taiwa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2, pp.32-41.

Abstract

Feature and meaning of dualism in *Wanwolhoimangyeon*

Kim, Suh-Yoon

In family novels, celestial world usually upholds order and harmony in paternal family. But in *Wanwolhoimangyeon*, feature and meaning of celestial world cannot be simplified so. Rather, stories in celestial world expose hidden aspects in earthly world oriented to paternal family order.

Superficially, characters of Jung insung and So kyowan are described as good and evil in *Wanwolhoimangyeon*. Jung insung who pursue accord in paternal family is depicted as a moral character and protected from celestial world. On the other hand, So kyowan who opposes to accord and harmony in paternal family is punished by celestial world. But actually, her hostility against Jung insung shows that she is isolated. Viewpoint of this work is not restricted to support absoluteness of paternal family order.

In this context, stories in celestial world act to show contradiction in paternal family order of earthly world. In celestial world, Kyunghayongnyeo (So kyowan) and Taeulsung(Jung insung) are hostile to each other. Their relation as mother and son is valid only temporarily in earthly world. In short, celestial world tells that earthly world oriented to paternal family order is not absolute.

As Wolf, M.(1972) emphasized, paternal family in East Asia had implied mother-centered uterine family. Uterine family, though not opposing to paternal family order explicitly, makes cracks in it. Regarding this, dualism in *Wanwolhoimangyeon* embodies disintegration between paternal family order and maternal uterine family, which would be the reality of women in noble class from late 17th to early 18th century.

Key Word : family novel, relationship between adopted mother and son, crack, dualism, paternal family, uterine family

김서윤

소속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주소 : (137-752) 서울 서초구 방배로 21 8동 201호 (방배동, 경남아파트)

전화번호 : 010-5772-7263

전자우편 : suhyoonk@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3일 게재 확정됨.